

2 0 1 9

www.dongkog.or.kr

동곡

동곡 가족들이 사랑과 행복을 드립니다.

동곡천사들 제주도 여행

2018. 09.03 ~ 09.05



엮는순서

- 1 표지
- 2 엮는순서 / 후원자님께 드리는 인사
- 3 원장님 인사말
- 4-5 우리들의 특별한 여행 - 제주도편
- 6-9 우리들의 생활이야기
- 10 자원봉사자 편지 및 활동수기
- 11 고마운 손길들
- 12-13 함께하는 사랑 - 자원봉사&후원
- 14 자원봉사활동방법
- 15 직원교육 및 동정
- 16 후원안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동곡요양원

2019년 제1호

32623 충남 공주시 반포면 송곡로 263-11

TEL : (041)857-7121 · 0150

FAX : (041)856-7121

후원인에게 드리는 소식지

2019년 (통권82호)

발행일 : 2019. 1

발행인 : 박 옥 분

편집인 : 김 미 란



좋은 운을 만나는 법
어떻게 해야 좋은 운을
가져다주는 사람과 만날 수 있을까요?
인격을 갈고닦는 것이 그 지름길입니다.
훌륭한 인격을 갖추면 주위에도 역시 인품 좋은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인간성이 좋으면 인품 좋은
친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운을 부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인품을 갖추면 좋은 만남이
늘어나서 운도 좋아집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 니시나카 쓰토무의《운을 읽는 변호사》중에서 -

* 운이라는 것은

어찌보면 운명이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운을 만나고 좋은 사람, 좋은 일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일을 행하고 앞장서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나의 덕과 인격을 닦아나가면서 그렇게 한걸음씩 꾸준하게
걸어가면 저절로 내 앞에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운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황금돼지의 해, 기해(己亥)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謹
賀
新
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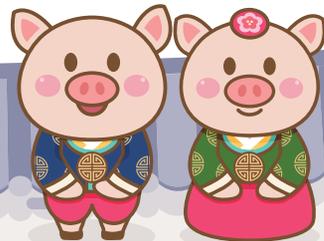
동곡요양원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을 맞이하여 인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술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도전이 있었고 어려움과 장애물도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동곡요양원 가족들을 위해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행복하고 따스한 한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함과 반복된 삶에 지루함을 느끼고, 그 행복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혹여 라도 익숙하고 반복되는 일에 지루함을 느낀다면 지금부터는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2019년 새해에는 저 또한 여러분들께 받은 큰 사랑을 마음에 담아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맛 볼 그 기쁨을 음미하면서 말이죠. 그 기쁨을 위해 여유로운 마음으로 모두 하나 되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일상이 소중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음의 기쁨이 오듯 올 한 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풍성하게 결실 맺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곡요양원장 박 옥 분 올림





여백이 많았던 단체 여행

이용자 안 형 근

제주도는 이런 내 기분을 아는지 우리일행을 맘게 맞이해 주었다. 키가 큰 야자수들이 푸르른 하늘과 진청 빛으로 잔잔하게 일렁이는 바다를 배경으로 이국적인 향을 뿜어내고 있었다. 제주 공항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에 흑돼지 삼겹살 구이 집으로 저녁 먹으러 갔다. 음식점은 해안가에 있었다. 저녁 먹을 때까지 시간이 비어서 느긋하게 바다구경 하고 사진도 찍었다.

오늘 여행 온 우리 요양원 가족들은 바깥 외출이 쉽지 않은 가족들이다. 아마 오늘 처음 비행기 타본 가족들도 많을 것이다. 힘든 가족들과 와서 이번 제주 여행은 특별하다. 뜨거웠던 여름의 열기가 자취를 감춘, 갈 바닷바람을 맞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갔다. 음식점 안은 흑돼지 향과 어우러진 숯불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두툼한 흑돼지 맛은 숯불 향과 함께 돼지고기의 질감이 살아 있어서 고소하고 부드러웠다. 마지막으로 양푼에 밥을 말아 먹은 돼지김치찌개는 아주 오래 전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이였다.

제주 여행 와서 먹었던 음식들은 지난 3월 일본 여행에서 먹었던 음식보다 푸근하고 풍성했다. 어릴 때부터 먹던 맛이어서 허기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채워줘서 안 좋았던 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보약 같은 음식들이었다. 리조트 1층, 같은 객실에서 2박을 묵어서 리조트에서 주는 조식을 2번 먹었다. 조식은 한식에서 양식까지 다양하게 준비된 뷔페식이어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어 좋았다. 맛있고 든든했다. 객실은 깨끗하고 넓었다. 편안하게 꿀잠을 잘 수 있었다. 그 뒤로 식당에서 먹은 갈치조림, 고등어구이, 보말국, 돔베구이, 해물 떡배기, 등은 제주 특유의 바다내음과 어우러져서 해변의 향취를 불러일으키는 맛이였다. 요새는 것갈류를 좋아하지 않지만 여행 마지막 날 해물 떡배기 집에서 반찬으로 나온 밴댕이젓은 알맞게 곱삭아서 밥 한 공기를 더 비웠다.

특히 좋았던 건 둘째 날 오전 물놀이였다. 리조트 내 깊지 않은 어린이 풀장에서 이번 여행 온 일행 대부분이 물놀이를 즐겼다. 수영장 주위로 야자수가 심어져 있고 멀리 바다가 보였다. 나도 며칠 전에 산 래쉬가드를 입고 그 위에 구멍조끼를 착용하고 물놀이에 한 걸 빠져들었다. 몇 년 전에 구멍조끼를 처음 샀을 땐 물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몸이 경직이 돼서 뒤집어지곤 했는데, 이젠 몸에 힘 빼는 법을 익혀 구멍조끼에 몸을 맡기고 물위를 둥둥 떠다닌다. 2시간여의 물놀이는 맑은 공기, 높고 청명한 하늘, 이국적인 야자수, 멀리 잔잔하게 일렁이는 쪽빛 바다



한 25년 전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그 때의 기억은 거의 없지만, 3일 동안 관광버스 타고 무척이나 바쁘게 돌아 다녔던 것 같다. 이번에도 버스 타고 둘러본 건 같지만, 스케줄이 촘촘하지 않아서 좋았다. 단체로 갔지만 느긋하게 생각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여행이었다.

여행 가기 20일 전쯤 왼쪽 팔이 붓고 아팠다. 공주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팔꿈치에 물이 차는 봉와직염이라고 했다. 주사기로 물 빼는 치료하고 그 뒤로도 진료를 받았다. 팔이 눌리면 안 된다고 해서 밥만 휠체어에 앉아서 먹고 계속 누워서 생활해야만 했다. 그래서인지 제주도 여행 가는 날 오전까지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제주도 여행 간다는 들뜸 때문인지 몰라도 청주공항에서 점심으로 나눠 준 꼬마 김밥을 먹는 순간 기분이 좋아졌다. 멍했던 기분도 상쾌해지고, 팔꿈치도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였다.



를 배경으로 신나는 물놀이를 했다. 우리 일행의 행복한 웃음 진땀방울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영상으로 우리 일행 모두의 가슴에 남을 듯하다.

점심 먹고 25년 전에도 갔었던 천지연 폭포도 관광했다. 20대 후반 때 보았던 폭포는 25년 전 그대로인데 난 벌써 50대 중반이다. 그 때 같이 왔었던 요양원에서 생활했던 동생은 3년 전에 하늘로 가고 없어서 그런지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졌다. 한 가지 이상한 건 그 때나 지금이나 폭포에 와서 바쁘게 사진만 찍고 가는 게 이상했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폭포를 감상하지 않고, 뒤돌아서서 이곳에 왔다 갔다는 증거 사진만 찍고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봤다.

그리고 퍼시픽랜드에서 돌고래 쇼를 관람했다. 돌고래 쇼 앞에 나온 원숭이와 물개 쇼는 예전에도 많이 보던 거라 감흥이 덜했다. 하지만 돌고래 쇼는 달랐다. 돌고래를 가까이서 실제로 보니까 검은 눈도 보이고 바닷물을 먹음은 투명한 피부까지 보였다. 높이 뛰어 링을 넘는 건 TV에서 몇 번 봐 왔었다. 돌고래들이 조련사들과 같이 유행하고 조련사들을 등지느러미와 코끝에 태우고 물위를 가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관경이라 새로웠다. 돌고래 코끝에 묘기 하듯 한 발로 선 조련사들이 신기했다. 남자 조련사보다 가벼운 여자 조련사를 코끝에 태우고 더 빠르게 멀리 갔다. 여자 조련사를 코 끝에 태우고 바르게 가는 모습에서 어렸을 때 재미있게 보았던 만화「마린 보이」가 떠올랐다. 흰 돌고래가 주인공 소년을 등에 태우고 인어 소녀와 바다에서 빠르게 움직이면서 악당들과 싸우는 내용의 만화였다. 그 만화 시리즈를 실사로 보는 것 같아 내 어릴 때 일들도 생각나게 했다. 40여년이나 지난 아주 먼 옛날 일들을 소환 할 수 있어 정말 좋았다.

제주 여행 끝 날 오전에 여행 마지막 코스인 점보 빌리지에 갔다. 동남아시아 온 코끼리들이 공연하는 곳이었다. 육중한 코끼리들이 동남아시아 조련사들과 함께 코로 그림 그리고, 공놀이 하고 각종 재주를 부리는 공연이었다. 바나나 주기와 코끼리가 발로 안마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나와 우리 일행들도 코끼리에게 바나나를 주는 흔치 않은 경험도 했다. 코끼리 발로 안마 받은 프로그램에 이 번 여행에 나와 전용식씨를 담당한 우리 방 선생님도 참여했다. 덩치가 아기 코끼리만한 선생님은 코끼리 색 담요 위에 담요 덮고 있으니 아기 코끼리하고 꼭 닮았다. 그래서인지 큰 코끼리가 우리 방 선생님을 자기 새끼 줄 알고 다른 참가자들 보다 살살 다루는 것처럼 보였다. 끝나고 물어 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아프지 않았고, 시원한데 담요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더 고역이었다.”고 말해서 같이 웃었다. 제주 여행 3일 동안 무거운 나를 드느라고 고생했는데, 뭉친 근육들이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3일 동안 정말 고마웠다.

밖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복지 시설에 있으면 통제와 제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이 모든 것이 통제됐던 7~80년대도 아니고, 자유롭게 자기 주장하는 이 시대엔 복지 시설에서 생활해도 충분히 자유롭고 행복하다. 지난 3월에 일본 여행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제주도 여행 하는 건 보통 사람들도 쉽지 않은 일이다.

나를 포함한 중증 장애인 22명을 아무 사고 없이 마칠 수 있게 정성껏 돌봐 준 10명의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 번 제주도 여행이 30여명 각자의 가슴 속에 한편의 예쁜 추억으로 남길 바라고, 난 그 동안 아팠던 몸과 그로 인해 받았던 스트레스까지 날려버리는 힐링 여행이었다.



우리들의 생활~♡



♥ 체험홀 - 늘해랑 (7월 17일 ~ 18일)
늘해랑에서는 우리가 요리사! 직접 맛있는 요리도 하고, 분리수거도 척척!



♥ 인권지킴이단회의 (7월 30일)
동국가족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 소그룹나들이 -
태안 안면도(8월 6일 ~ 7일)
무더위를 날리기 위해 안면도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바다의 시원함을 느끼고 왔답니다.



♥ 소그룹나들이 - 유구읍 구수동펜션 (8월 21일 ~ 22일)
여름에는 물놀이가 최고지요~ 펜션 수영장장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며 시원한 여름을 보냅니다.



♥ 충남 장애인거주시설 한마음대회 - 썬셋리조트&수련원 (8월 29일 ~ 30일)
충남 장애인거주시설이 한 자리에 모여 즐거운 게임과 바닷바람을 맞으며 무더위를 식히고 왔습니다.



♥ 심O회 회갑연 (9월 7일)
회갑을 맞은 심O회님의 회갑잔치가 열렸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만큼 많은 웃음과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날 되세요^^



♥ 제64회 백제문화제관람 (9월 22일)
멋진 야경을 보며 백제의 역사를 알고, 문화를 체험하고 왔습니다.



♥ 소그룹나들이 - 무주 (10월 8일~ 9일)
처음으로 레프팅을 체험했습니다. 체험 전에는 조금 무서웠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아주 재밌고 시원했던 즐거웠습니다.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힐링연수 - 베트남 다낭 (10월 15일 ~ 19일)
충청남도과 공주시 지원으로 종사자 힐링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베트남 다낭에서 힐링하며 재충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세종시호수공원 푸드축제 - 도예체험 (10월 22일)
도예프로그램 대상자분들과 함께 푸드축제에 열린 도예체험장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도자기로 예쁜 모빌을 만들고 왔지요.





♥ 제12회 공주시 복지박람회 (10월 24일)

공주시 복지박람회를 통해 동곡요양원을 홍보하고, 동곡어울마당의 난타공연과 스트링파우치 만들기 체험활동을 하였습니다.



♥ 할로윈데이 행사 (10월 31일)

어떤 분장을 할지.. 고민하고 고민하더니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멋지고 개성이 강한 다양한 분장들로 할로윈데이를 즐겼습니다.



♥ 뽀뽀로데이 행사 (11월 11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직접 뽀뽀로를 고르고 그 마음을 가득담아 선물했어요.



♥ 월동준비 - 맛있는 김장하는 날! (11월 13 ~ 15일)

올해 김장도 많은 손길들의 도움으로 맛있게 김장을 하였습니다. 함께 해 주신 53군수지원단, 공군본부 군무원단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동곡 자치회 - 동올림 (12월 10일)

이용자들의 솔직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더욱 발전하고, 개선되는 동올림입니다.



♥ 숲체원 체험행사 - 공감 어울(林) (12월 15일 ~ 16일)

경북칠곡에 위치한 숲체원을 다녀왔습니다. 추운날씨였지만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충남평생교육원지원 - 하하,호호 happy 바이러스 웃음치료프로그램 (9월 14일 ~ 12월 14일)

충남평생교육원지원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동곡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딱딱한 강의가 아닌 신나는 스트레칭 위밍업으로 시작하여 모두 일어나 어깨 들썩이는 노래와 댄스로 에너지를 끌어 올려 생활의 활력을 더 해주는 즐겁고도 즐거운 시간입니다.



♥ 크리스마스행사 - 동곡한마당 (12월 24일)

여느 때보다 더욱 풍성했던 크리스마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한걸음에 달려와 트럼펫과 플루트, 피아노 연주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격렬한 스포츠댄스로 한껏 달아오른 무대와 멋진 댄스공연! 그리고 감미로운 노래와 신비로운 마술, 저절로 흥겨워지는 신나고 신나는 아랑고고장구 공연까지! 마지막으로 동곡 어울마당의 신명나는 난타공연이 더해져 풍성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함께 하면 기쁨이 두배 세배가 되듯 많은 관심과 사랑 덕분에 웃음꽃이 가득했던 하루였습니다.



♥ 생일파티 -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가족들이 태어난 소중한 날♪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 7월 - 심○철 이○환 임○자 박○정 김○ 박○복 정○영 문○심
- 8월 - 윤○경 김○영
- 9월 - 심○희 최○정 권○은 원○숙 길○동 전○화 안○호 허○휘 박○우
- 10월 - 김○자 김○화 방○희 안○환 안○수 임○국 정○호 이○태 김○동
- 11월 - 이○옥 이○용 유○영 서○화 김○동
- 12월 - 조○정 박○주 전○철

：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



♥ 세종예술고등학교 미술과 - 석고방향제, 캐리커처 (7월 7일, 9월 29일)

동곡 가족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예쁘게 그려 좋은 향기가 나는 석고방향제에 장식해봅니다. 예쁜 얼굴이 더욱 향기롭게 빛나는 것 같아요.



♥ 1318사랑의열매 캠프 - 국립중앙과학관 관람 및 그림그리기 (7월 26일~27일)

1박2일동안 짝을 이룬 학생들과 국립중앙과학관을 관람하고, 예쁘게 그림도 그리고, 명랑운동회를 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어요.



♥ 홍유정님과 함께 하는 만두만들기 체험 (8월 12일)

홍유정님과 아이들과 함께 만두만들기 체험을 했어요~ 직접 준비해오신 만두 재료로 만두를 만들어 맛있는 만두국을 끓여먹었습니다^^



♥ 양지중학교 - 전지활동(12월 22일)

전지에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 예쁜 트리를 그리며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를 바래봅니다.



♥ 충남과학고등학교 - 사탕목걸이 만들기, 종이접기 (12월 12일)

조그마한 사탕이 모여 예쁜 목걸이, 팔찌, 귀걸이가 되었고, 다양한 종이접기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 부엉이 윈드벨 만들기 (12월 15일)

부엉이를 예쁘게 색칠하여 꾸미고, 신기한 소리와 함께 소리표현을 해보았습니다.

： 재능기부 ։



♥ 예담기타동호회 (7월 7일)

크고 강한 소리를 내는 통기타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 가수 박성현 공연 (8월 14일)

많은 공연 스케줄로 바쁘신 와중에도 매년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가수 박성현님. 박성현님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취해 시간 가는 줄 몰랐던 행복한 시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동구나무 - 짜장면봉사 (10월 16일)

동구나무봉사단의 짜장면 나눔봉사가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직접 만들어 주셔서 정말 맛있는 행복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 공주 남북하나봉사단 - 국수봉사 (10월 18일)

시원한 멸치육수를 진하게 우려 만든 정성 가득한 국수! 쫄깃한 면과 육수가 어우러져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 조영수 색소폰 학원 공연 (11월 3일)

항상 잊지 않고 찾아와주시는 조영수 색소폰 학원 공연입니다. 다양한 음악으로 동곡 가족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록미술단, 장원색소폰동호회 공연 (11월 13일)

신비한 마술공연과 색소폰 공연으로 동곡 가족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시는 상록미술단과 장원색소폰동호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 금성여자고등학교 음악반 공연 (11월 17일)

금성여자고등학교 음악반 학생들의 환상의 하모니가 동곡 가족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 이희재님 색소폰공연 (12월 4일)

이희재님의 색소폰 연주는 언제나 마음에 감동이 물결치게 합니다. 거기에 피코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더 해주셔서 동곡 가족들의 흥을 돋우어주었습니다.



♥ 다정초등학교 4학년 학생 공연 (12월 8일)

귀여운 학생들의 리코더연주, 통기타 연주가 있었습니다. 고사리같은 손으로 연주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지요~



♥ 강남순복음교회 공연 (12월 9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신나는 율동과 악기연주로 멋진 공연을 펼쳐주셨습니다.



♥ 명주원 인형극 - 특별한 아이들 (12월 19일)

'특별한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인형극은 그동안의 노력이 엮보였던 소중한 무대였습니다.



동곡요양원 어르신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양지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보민 학생입니다.
 처음엔 봉사를 한다고해서 지루할 것 같고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 동곡요양원에 와서 어르신들과 친하게 지내고 친구처럼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 좋아요.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사탕목걸이도 만들고, 호수공원으로 나들이도 가고 정말 즐거웠어요. 벌써 2018년이 끝나가고 2019년이 다가오는데 2019년에는 지금보다 더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메리크리스마스~

2018.12.22 (토)
 이보민 학생 올림

'틀린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틀린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나는 동곡요양원으로 봉사 오면서 이 말이 더 확실히 마음에 다가오게 되었다.
 중학교때는 1365에서 요양원 같이 어려운 봉사는 하지 않았다, 환경미화 같이 쉬운 것만 하고 다녔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올라오니 거의 반강제로 동곡요양원에 오게 되었다.
 그래도 '이런 기회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요양원을 열심히 다녔다, 평소에는 장애인분들과 만날 일이 전혀 없었다, 장애인분들이 딱히 싫거나 그러지도 않았다, 우리 아버지께서 특수학교 교사로 장애인분들을 가르치시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끔씩 길을 가다가, 또는 학교에서 잠깐 장애인분들을 만나면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든다,



아마 아기가 처음 보는 사람을 낯설어하고 무서워하듯이 내가 그 장애인분들의 상황과 성격을 몰라서 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나뿐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장애인분들을 먼저 판단하고 피하고 무서워한다, 또 거부한다, 하지만 동곡요양원 가족 분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활동 하면서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교육을 더 강화해야한다,

세종고등학교 이경식

그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공주남북하나봉사단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공군본부 군무원단



공군본부 부사관단



공군본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국민건강보험 공주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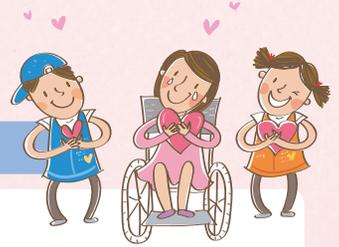


천하제일사료

행복은 머리로 재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행복의 영역은 생각과 느낌,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는 사랑입니다.
 동곡 가족들은 후원자님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 행복합니다.
 이 모든 마음들이 연결되어 동곡 가족들과 함께 합니다.
 그로인해 한 순간 순간 모든 것이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랑을 몸으로 실천해 주시는 자원봉사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눔이 있어 더욱 소중한 기쁨입니다.



자원봉사 해 주신 분들 (2018년 7월 ~ 12월)

♥ 종교활동서비스

예수능력교회 강남순복음교회 하늘소망교회 신촌한빛교회 반석동성당사회복지분과 덕명동성당

♥ 군부대 자원봉사

53군수지원단 공군본부군무원단 공군본부부서관단

♥ 대학생 자원봉사자

공주대학교로타랙트

♥ 청소년 자원봉사자

세종고등학교솔누리봉사단 세종예술고등학교(박선아외65명) 도담고등학교(박상욱외6명)
보람고등학교(임태환외2명) 공주여자고등학교(김수현외7명) 대성고등학교(오진호)
장대고등학교(유난영) 구봉고등학교(조지형) 봉향중학교(조성환) 공주중학교(김규동)
아름고등학교(이시영외14명) 부여고등학교(윤석준) 충남과학고등학교(강미나외24명)
글벗중학교(금숙현외2명) 반포중학교(김기욱외2명) 장대중학교(유예찬외2명)
도안중학교(박정현) 공주여자중학교(구세인외4명) 양지중학교(권지우외74명)
도담초등학교(정지성외2명) 다정중학교(이태경외8명) 성모초등학교(김하연외6명)
MBC1318사랑의열매40명

♥ 기타

KDI한국개발연구원 조영수음악학원 예담기타동호회 가수박성현 제7기5급승진리더과정
대전건강관리협회 상록마술단 장원색소폰동호회

※ 우리의 실수로 봉사 명단이 누락이 된 경우 주저마시고 연락주세요.

후원회 소개 (2018년 7월 ~ 12월)

♥ 개인

강강호 강양규 강선희 구선곤 김경화 김명달 김명숙 김명희 김문옥 김미란 김성곤 김수중 김순국
 김영수 김영일 김용지 김용준 김용현 김옥중 김은아 김은주 김정순 김재곤 김재철 김종선 김종섭
 김중태 김진구 김진석 김춘례 김혜나 노옥자 도중학 라국환 류병도 문춘선 문희봉 민상기 박기호
 박동우 박미애 박범재 박상숙 박상호 박수영 박양규 박연주 박영수 박옥분 박원경 박정규 박정자
 박정후 박제희 박종권 박주향 박찬형 박천수 서윤정 서정희 서희정 성문영 송미영 송인선 심상훈
 심 혁 심석복 심완보 심현진 안명석 안은영 양한기 여태성 연보람 오미숙 오옥석 원은주 왕은성
 유근화 유성태 유윤구 유향희 윤여범 윤영준 윤용균 윤용미 윤창식 이미숙 이범승 이병일 이상훈
 이선희 이세영 이숙자 이순구 이순례 이영례 이영자 이은화 이윤진 이장주 이재승 이재인 이주희
 이지원 이진이 이태순 이철하 이최관 이한석 이현옥 이현주 이현주 이화연 이훈석 임민식 임병락
 임성열 임윤빈 임지혜 임태준 전미경 전영택 정문영 정민기 정선옥 정연만 정영희 정해철 정형권
 정희송 조성현 조성희 조원석 조현창 차갑중 차순희 천동희 최강열 최용규 최완재 최은숙 최인중
 한영섭 허만원 홍명선 홍민숙

♥ CMS

여은미 박현식 이춘옥 정용옥 임재교 홍예표 (주)준성 이숙희 정태현 이광원 김지선 조유아 이현주
 박래중 손현덕 윤석관 이광희 장 재 최윤범 이승주 김왕한 이숙현 박혁수 신현관 허창수 홍순옥
 이지혜 이한구 이선영 이시경 오만택 이지혜 양상록 연구공 김종완 주은숙 (주)선재동천사람들

♥ 단체

우진산업(주) 지음회 동양특수전열 노운섭한의원 (주)대륜 반포가스 공주기업(주)
 보름달회원 ▶ 이철휘 김기춘 박상신 조순용 송인학 장경옥 이창숙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결연후원 - 허태영

♥ 신규회원 - 김태은 이성순

♥ 기부금 · 물품후원(7월 ~ 12월)

육군본부계룡사랑후원회 공군본부 공군본부군무원단 공군본부부사관단 예수능력교회 강남순복음교회
 신촌한빛교회 공동모금회 반포우체국 현대병원 쌍둥이네 의당고추 이솝(Esoup) 남양유업공주대리점
 보훈나눔회 공주시청도시정책과 KDI러빙라인 크리스피크림공주신관점 자명디자인 제일사료(주)
 수산중도매인61번 상지초등학교 보훈심사위원회 다정초등학교 국민건강보험공주시지사 임성열 홍유평
 장대익 이희재 이주희 이숙자 윤용미 오재성 여영순 성강식 이백규 이종호 최영수 배종석 박상숙
 박찬형 명옥환 라영창 김영희 김마리아

♥ 이런것들이 필요해요

생활용품 : 주방세제와 세탁세제, 성인용 기저귀(완전팬티형/특대), 칫솔, 세수비누, 화장지, 고무장갑, 샴푸
 의약품 : 타박상약, 소화제, 청심환, 소독용 알코올, 파스, 미세먼지마스크, 기타 비상약품 등

식품 : 간식류로 드실 수 있는 과자나 과일, 음료, 라면이나 음식재료 등

학습자료 : 공책, 연필, 퍼즐맞추기, 레고장난감등(가정에서 친구들이 싫증이 나서 가지고 놀지 않거나
 필요가 없는 퍼즐 맞추기나 레고 장난감을 가지고 오시면 장애인들이 적절한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 우리의 실수로 후원 명단이 누락이 된 경우 주저마시고 연락주세요.

“작은 나눔으로 시작하는 행복”

당신의 관심과 작은 나눔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원봉사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봉사활동은 사전 신청(최소1주일)으로 진행되며,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하실 경우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활동 구분	활동예시
노력봉사	시설 내·외부청소, 식사보조, 환경미화, 시설주변 환경정리, 제조작업, 텃밭손질 등
교육지원	미술, 종이접기, 공예, 컴퓨터, 음악, 한글 및 기초학습 등
정서지원	산책, 말벗도우미, 동화구연 등
사회활동지원	여가활동&나들이지원, 차량지원, 종교활동지원 등
재능기부	공연활동, 의료지원, 마사지 등

꼭 필요한 자원봉사자의 자세!

- 1 대상자에게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의바른 행동, 고운 말 쓰기!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되도록 피해주세요.
- 2 봉사활동 시, 시간약속은 신뢰의 밑거름입니다.
- 3 진실 되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합니다.
- 4 단정하고 편한 옷차림으로 활동해주세요.
- 5 봉사활동 시간에는 늘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해주세요.
- 6 열린 마음, 웃는 얼굴로 장애인을 대해주세요.
- 7 봉사활동 중 모든 이들에게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 8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은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 9 봉사는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VMS(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시스템)

VMS란? 전국 자원봉사단체/기관 상호 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고 나아가 봉사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자원봉사활동 VMS 등록관리

1. 봉사활동 오시기 전에 VMS 사이트(www.vms.or.kr)에 봉사자 회원 가입을 합니다. (미 가입 시 봉사활동 실적 등록이 불가합니다.)
2. 가입한 사람의 이름과 ID를 동곡요양원 담당자(자원봉사인증관리요원)에게 안내합니다.
3. VMS를 통하여 봉사실적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실적이 잘못 등록 되었을 때, 확인서 발급 전 동곡요양원으로 연락주시면 수정해드립니다. 만약 발급을 받으시면 수정이 불가합니다.)

* 행정자치부의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VMS(www.vms.or.kr)시스템을 연동한 가입자도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가능합니다.

직원동정

환영합니다!

· 영양사 김태은

가족분들의 맛과 영양을 책임지는 영양사로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여정이 행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태 은

교육명단(2018. 7. 1 ~ 2018. 12. 31)

교육 일자	교육 과정	참석자
7.11	지역협의체 회의	사무국장 유○희
7.12~13	장애인거주시설 '사무원'연수회	사무원 유○화
7.18	2019년도 배분사업 설명회	사회복지사 김○란
8.22	2018년 식품위생 교육	영양사 김○은
8.27~28	2018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시설장 박○분외 28명
9.17	2018년 인권침해 예방 교육	시설장 박○분 사무국장 유○희
9.18~19	2018년 3분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자교육	사무원 유○화
9.20	2018년 3분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자교육	사회복지사 김○란
9.28	2018년 9월 사회복지근무자 교육	사무원 유○화
10.10~12	장애인거주시설의 자립생활지원과 개별지원	생활재활교사 이○화 생활재활교사 이○희
10.15~19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힐링연수	재활지원과장 이○희외 6명
11.15	2018년 공주시 힐링프로그램	사회재활팀장 구○곤 사회복지사 김○란
11.21	연말정산교육	기획행정과장 이○순

2018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사업기간 2018. 1. 1. - 2018. 12. 31)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합 계	131,199,290	합 계	131,199,290
전년도이월금	75,356,540	사무비	29,232,070
비지정 후원금	44,060,750	재산조성비	10,448,550
지정 후원금	11,782,000	사업비	41,090,070
		이 월 금	50,428,600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어요!!!

가장 편리한 후원방법 자동이체

후원회 가입 후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자동이체 및 CMS로 신청하시면 후원자님 계좌에서 약정금액이 인출되어 동곡요양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금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거 소득공제(사업자 및 근로소득자)가 되며, 개인정보에 동의하신 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신청

• e-mail : dk1984@hanmail.net • 전화 : 041)857-7121/0150

♡ 여러분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기다립니다.

후원안내

은행	계좌번호	은행	계좌번호
농협중앙회	409 - 01 - 066380	하나은행	659 - 110844 - 00205
국민은행	461- 01- 0236 - 021	우체국	311233 - 01 - 000265
(구) 주택은행	726337 - 01 - 001548	지로번호	7 6 2 0 5 9 3

예금주 : 동곡요양원

CMS(자동출금이체서비스) 후원안내

CMS란 금융결제원과 은행의 통합전산망을 통해, 이용자의 금융거래를 은행에 직접가지 않고도 전자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 약정된 후원금을 후원자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가입단체(동곡요양원)의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자동출금이체 서비스입니다.

- CMS를 사용하시면 : 1. 후원자님께서 지로납부 및 자동이체 신청을 위해 은행에 직접가시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신청하셨던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2. 동곡요양원은 지로 용지 제작비용과 발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CMS 신청방법 : 동곡요양원으로 전화 연락주시거나 양식을 작성하시어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후원금액 : 기존에 보내주시던 후원금액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동곡요양원 오시는 길

여러분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기다립니다.



※본 소식지의 사진은 개인 동의하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